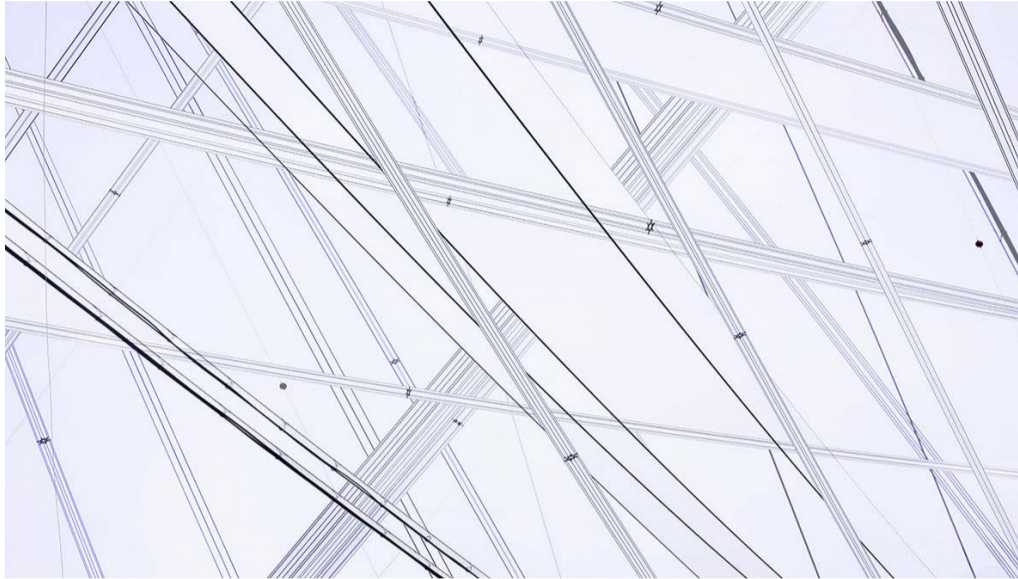


PREVIEW

박선민 개인전 <고속도로 기하학>
Park Sunmin solo exhibition <Highway Geometry>

전시기간 | 2015. 9. 30 수 - 2015. 10. 20 화
오프닝 리셉션 | 2015. 10. 2 금 18시
아티스트 토크 | 2015. 10. 17 토 16시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9월 30일 부터 10월 20일까지 박선민 작가의 개인전 <고속도로 기하학>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 영상, 공간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적 요소들의 감각적인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박선민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 가지 대상이 지닌 양면성에 집중하여 그 이면의 관계망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냄으로써 독립된 작업세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추함과 닿아있다. 추함뿐만 아니라 위해성, 심지어 죽음의 뒷면이 도시의 아름다움일지도 모른다. 도시에 살며 무수한 도로를 질주하며 아름다움을 쫓는 시선은 아름답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곤 한다

- 작가 노트 中 -

© 인터뷰

Q. 전반적으로 이번 전시의 작품의 특징은 시각적 감각이 내용이나 개념 부분보다 더 비중이 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는 내러티브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위기를 전조에 두는 영화의 일부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이번 전시<고속도로 기하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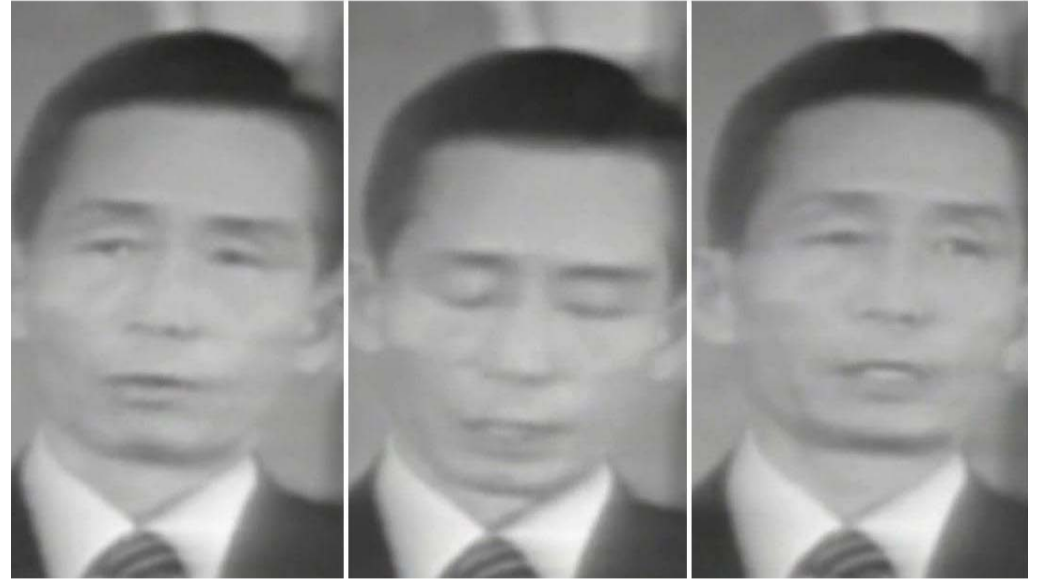
A. 이번 전시의 경우는 각각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의 제목은 바로바로 나온 편인데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고속도로 기하학>을 작업하면서 달리며 촬영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편집 작업중 다른 속도로 접근하다보니 보이는 것들이 놀랍게 많았습니다. 질주할 때 만들어지는 속도와 시간성이 소실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기하학을 만드는 것을 수 년간 흥미롭게 관찰해왔고 그 조형성을 흔드는 파편들이 가진 추상적이고 혼란스런 시각성과의 대비에 주목하면서 속도와 속도가 멈출 때 파괴되는 생명과 죽음의 첨예한 순간이 기하학의 추상성의 사이사이 내러티브로 개입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각성의 뒷면에 개념이 맞붙어 있다고 믿고 시각적으로 끌리는 것에는 의심없이 몰입하는 편입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개념으로 정리되는지 이해될 때까지 다양하게 실험하는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이 작업을 한다는 일이 일상과 다른 지점이란 생각이 들었고 일상의 시선으로는 보이지않던 것을 작업을 하는 어쩌면 빠뜨려진 시선으로 보면 드러나는것, 이런 시각이 없었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들을 이해될 때까지 실험하고 드러내는 일, 이런 것들은 작업 전체에 아울러 일어나는 현상으로 작업을 하면서 세상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삶을 이끈다라는 생각에 그런 대표적인 작업중 하나인<고속도로 기하학>을 전시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Q. 과거의 식물 알파벳이나 점자 전등 등의 작업을 보면, 언어와 물질 사이의 경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의 작품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나요? 혹은 과거와 현재의 작업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A. 물질은 이미지이고 물질이 언어를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실체가 아니고 물질의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유희적으로 새로운 체계를(식물암호) 만든다든지 맥락을 파괴하고 재구성하거나(신문시) 숨기는(점자전등) 등의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리창에 전시하는 작업인<window, shadow, meadow>가 식물로 암호를 만들어 온 작업의 개념 정리를 하는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런 창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겠고 인공조명보다 외부로 난 창(window)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선호하고 그런 빛이 들어오는 창에 뭔가 하고싶은 생각에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암호 작업을 왜 한 것일까를 생각하며 노트에 썼던 “식물/사물의 그림자(shadow)가 사라지지 않고 글자가 되었다”라는 문장에서 기인한 작업입니다. 유리창에 예칭으로 반투명 식물패턴이(meadow)무리지어 그려지고 그 패턴은 햇살이 비추면 바닥에 그림자로 드러납니다. 검게 비추는 그림자는 글자이고 문장입니다. 그 문장들이란 제가 작업하면서 종종 써내려가는 단상중에 식물성을 비유하여 쓴 자조적인 내용들에서 가져왔고요.

제6회 PT & Critic 박윤삼 개인전 <국민>
Park Yunsam solo exhibition <A People>

전시기간 | 2015. 10. 27 화 - 2015. 11. 15 일
오프닝 리셉션 | 2015. 10. 27 화 18시
PT & Critic | 2015. 11. 7 토 16시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신진 작가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 2회 <PT & Critic>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박윤삼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국민>을 선보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신호를 무시했다.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이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운동선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예술가는 다른 사람의 노래를 베꼈다. 거짓으로 수당을 받고 편법으로 기록을 만들었다.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사용하였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진실인지 알 수 없다.

- 작가 노트 中 -

© 인터뷰

Q. 이번 전시 <국민>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이 사회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말하고, 누군가는 평화를 이야기 하지만 나는 무엇을 말해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척의 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라는 물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다. 그리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느끼고 있는 사회적 문제나 그 대상에서 출발했습니다. 특정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대답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기분으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Q.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작가 세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가의 노동에 대한 문제 또한 <자소서>라는 작업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A. 정치나 종교는 민감한 소재로 대화가 꺼려지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경우, 화면에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종교적 소재를 사용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것들을 다룸으로써 정치적 혹은 종교적 쟁점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특정 당파 혹은 특정 종교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그것들이 가진 사회적 기능, 적나라하게 이야기 하자면 '무능함' 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소서>는 취업에 실패한 이들의 자기소개서를 수집하여 재구성한 작업입니다. 작업에서 택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직장을 알아보거나 직접 입사 지원서를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도 수시로 아르바이트를 자리를 알아보고 지원서를 쓰기도 합니다. 저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앞날이 막막한 젊은이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취업난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동시에 오늘의 청년들이 진로와 생계로 고민하는 현실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 종교에 대한 표현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사진 작업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종교가 사랑과 자비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만, 이 사회의 종교인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특정 종교의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종교의 현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주위사람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흉물스런 플래카드와 확성기로 '믿음' 을 강요하는 종교인의 모습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종교가 개인에게 건전한 종교관을 갖게 하는 이전에 일단 믿으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구복에만 집중하고 약자의 보호, 사랑과 관용의 가르침, 사회의 통합과 같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품 속 사진은 대한민국에서 각 종교를 대표하는 건축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종교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오브제나 풍경은 배제되었으므로 관객은 사진에서 종교의 상징물을 포함하여 각 종교를 암시하는 그 어떤 힌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작품의 제목만이 사진을 찍은 장소를 암시합니다.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사진 이미지들은 대한민국에서 종교가 가진 한계를 나타냅니다.

| REVIEW with PHOTOS |

제5회 PT & Critic 백경호 개인전 <Cast away>
Baek Kyungho solo exhibition <Cast away>
2015. 9. 1 화 - 9. 20 일



계란, 에반게리온의 레이와 이름 모를 일본 만화의 미소녀 캐릭터, 해변의 비키니를 입은 가슴 큰 여자, 평양냉면, 피카소와 리히터에 대한 오마주, 정리가 안된 방의 풍경. 이것이 백경호의 그림을 통해 내가 발견한 것들.
휴대폰의 배경화면, 아스날의 선수, 일본 만화 몇 가지의 제목들, 그의 텍스트를 통해 추가로 찾아낸 것들.
때론 단순명료한 것들이 더 이야기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백경호 작가는 자신의 주위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내어 캔버스에 마음대로 그렸다. 화면은 때론 분할되기도 하고 개체들이 뒤섞이기도 하며 난해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 작가에게 분할된 화면과 파스텔 톤으로 칠해진 사각형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작가는 그저 디자인적 요소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 그것엔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참으로 뻘뻘스럽다고 느끼면서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글. 박윤삼 코디네이터)

- 1 | 백경호 작가
- 2 | 제 5회 PT & CRITIC, 9월 12일
- 3 | <cast away> 전시장 전경

김다움 개인전 <대나무숲 옆에서>
Kim Daum solo exhibition <By the Bamboo Forest>
2015. 8. 6 목 - 2015. 8. 26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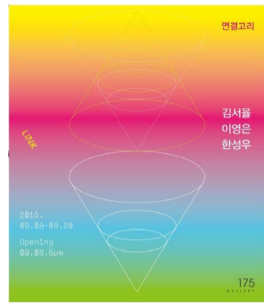
당신과 내가 나누었던 말들은 증발하지 않고 씨앗이 될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씨앗대신 뿌리로 번식이 될 거예요.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 했던 언어와 생각들은 한숨이 아닌 새싹으로 세상에 나오겠죠.

우리의 숲에선 바람이 불어요.
맞닿은 마디에선 박수소리가 나죠.

- 1 | 오프닝 리셉션, 8월 6일
- 2 | 아티스트 토크, 8월 22일
- 3 | 작품 <어쿠스틱 디퓨저-대나무숲>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한성우 작가는 갤러리 175에서 열리는 단체전 <연결고리 LINK>에 참여했습니다. 전시기간은 9.8 ~ 9.20 까지.

김영민 작가는 인스텐트 루프(안국)에서 열리는 2인전 <실패를 향하여>를 가집니다. 전시기간은 9.24 ~ 10.9 까지.



허은경 작가는 LEEAHN 갤러리 대구에서 개인전 <상상정원 Boom Bang Garden>을 가집니다. 전시기간은 9.16 ~ 10.31 까지.



김다움, 장민승 작가는 아르크 미술관에서 열리는 단체전 <소리공동체 Sound of Community>에 참여합니다. 전시기간은 9.23 ~ 11.15 까지.

구민정 작가는 소마미술관에서 열리는 단체전 <소마드로잉 : 무심 無心 (가칭)>에 참여합니다. 전시기간은 2015.10.30 ~ 2016.2.14 까지.

구민정 작가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설계1동 R&D갤러리에서 사루비 아다방이 기획한 2인전 <OoOo(구민정 전시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전시기간은 9.3 ~ 10.1 까지.

장종완 작가는 네이버문화재단의 <헬로!아티스트> 전시에 참여합니다. 서울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에서는 10.3 ~ 10.25 까지. 제주 아라리오뮤지엄 탐동바이크샵에서는 2015.10.10 ~ 2016.01.03 까지입니다.

노충현 작가는 갤러리 SoSo에서 개인전 <자리 Zari>전을 가집니다. 전시기간은 10.3 ~ 11.1 까지.

신기운 작가는 '예술과 재난' (강제육, 신기운, 하석준, 임도원) 팀으로 슈퍼태풍 올란다로 황폐화된 필리핀 타클로반 산 페르난도 센트럴 스킴을 방문, 3D 프린팅 워크숍을 열어 어린이들의 장난감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수경 작가는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개인전 <믿음의 번식 Saint Breeders>을 가집니다. 전시기간은 9.18 ~ 12.20 까지.

| W&D NEW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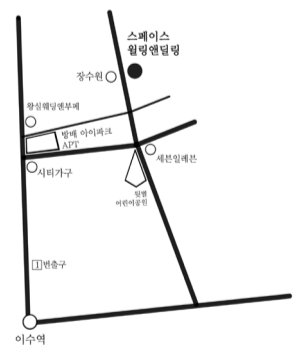
한황수 코디네이터는 헤이해진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삭발을 감행했다. 그리고 더디게 자라는 머리카락을 보며 오늘도 응큼한 생각을 하고 있다.

김인선 디렉터는 헤이해진 몸매를 가다듬기 위해서 PT를 시작했다. 그리고 더디게 줄고 있는 몸무게를 보며 오늘도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박윤삼 코디네이터는 윌링앤딜링에서의 개인전이 인맥으로 성사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 오늘도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다.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에 재학중인 이경아 학생이 윌링앤딜링 인턴으로 합류하였다.

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 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박윤삼, 한황수
감 수: 김인선
발행일: 2015년 10월 29일

